



## ‘광주형 일자리’ 민주 성지 광주서 경제 민주주의 열었다

###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합작공장 투자 협약식 개최 문재인 대통령 “공존경제 기반 혁신 성장 성공시키자”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가 역사적인 첫 발을 뒀다.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가 ‘업계 평균보다 임금을 줄이는 대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노사 상생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모델’을 한국 사회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 2.3면>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정신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 합작공장 투자 협약식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3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특히, 구상 단계에서 협상 성사까지 4년 7개월여 진통을 겪은 광주형 일자리가 이날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면서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의 전국화에 나서는 등 국내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주체인 지역 중소기업 대표, 학생, 시민이 대거 참석했다.

협약식은 광주형 일자리 영상 소개, 소감 발표, 협약 체결, 축사, 마무리 공연 순으로 40여분간 진행됐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 주재로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도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기증하고 나누고 사회

안전망 속에 미래를 꿈꿔야 한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다. 공존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노사 대화합의 결과물이며,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은 많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투자자에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수익을 얻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와 지역사회, 현대차 및 투자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노사민정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자동차 산업에는 풀과구를 찾는 기회가 되고, 현대차는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을 다 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일부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협약식에 참석한 이용섭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30여년 동안 노동 현장에 몸담은 노동자 출신들이 만들고 직접 추진해 온 사업이다”면서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파이팅”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시-현대차 완성차공장(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용섭 광주시장,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 설 연휴 밥상 화두는 내년 총선

### 선거제도 개혁 협상 따라 지역 정치권 변화 클 듯

이번 설 연휴 밥상에는 21대 총선이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내년 총선은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정계 개편, 세대교체 바람 등으로 지역 정치권의 변화 폭이 그 어느 때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략적 선택을 주도했던 호남 민심의 흐름은 내년 총선 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선거제도 개혁은 내년 총선 최대 변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지역 정치권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압승을 자신하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불변할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도농복합형 선거제를 토대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선거제도 개편으로 인한 각종 변수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의 호남 중진들은 기존의 인지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선거구제를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30

석정도 늘려 의원 정수가 330명 정도가 된다면 기존의 지역구 경쟁 구도 속에서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견제’를 고리로 정당 투표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유한국당이 보수통합의 깃발로 대안을 정비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해법이 먹히지 않을 경우, 진보 진영 간의 통합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 독주 속에 당 대당 통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민주당 선별 입당 가능성도 거

론되고 있지만 최근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복당이 무산되면서 가능성은 크게 좁아졌다. 또 정치적 생존을 위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간의 통합 및 제3차대 결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대교체 바람도 거셀 전망이다. 호남 민심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고리로 지역 중진들에 기회를 줬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으로 분화하며 호남 정치의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당 바람에 힘입어 당선된 초·재선 의원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특히,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욕구가 크다는 점에서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거질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선거제 개혁법안 1월 처리 무산 ... 한국당 뺨 여야 “2월엔 꼭 처리”

여야 5당이 지난해 약속한 1월 임시국회 내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합의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의 무관심과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국민과의 약속은 또 다시 지켜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선거제 개혁논

의 경과를 공유했다. 이날 회동에는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으로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심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신속히 선거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개혁의

가 논의를 조금만 더 진전시키고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을 병행하면서 2월 중에는 반드시 선거법 개정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며 “2월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정개혁 위법뿐 아니라 원내대표 수준의 정치협상을 병행해 마무리하자는 대국민 약속을

오늘 안에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자당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2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야 3당이 선거제 개혁 실현을 위한 특단의 방법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언급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설 특집 32면 발행  
4·5·6일자 쉽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설 연휴 TV 프로그램 24~27면

| 설 연휴 날씨 | 1(금) | 2(토) | 3(일) | 4(월) | 5(화) | 6(수) |
|---------|------|------|------|------|------|------|
|         |      |      |      |      |      |      |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 가, 피부 피로  
잘 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비타C 콤플렉스™의 향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

· 전국 이리파우, 미트, 아모레퍼시픽 매장, 아모레퍼시픽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amorepacific.com · 전화번호: 080-023-5454